

■ 특집 ■

호주의 이민자 공간과 한인 공동체
- 호주의 산업구조에 따른 집중과 분산 -*

신 동 규

I. 머리말

호주 한인들의 도시 공간 분포는 이주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앤드류 마르쿠스(Andrew Markus), 제임스 쥘(James Jupp), 그리고 피터 맥도널드(Peter McDonald)의 공동연구는 호주의 도시공간에서 이민자들의 ‘집중(concentration)’과 ‘분산(dispersion)’을 설명하고 있다.¹⁾ 이 형용모순은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아델라이드 등에 분포하는 이민자의 대도시 집중 현상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도시 공간 내에 다양한 이민자 그룹의 분산이라는 두 가지 특징의 공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집중’과 ‘분산’ 현상은 호주 이민자들이 형성한 에스닉 공간의 특징을 함축적으로 설명한다.²⁾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한인 이주의 역사에서 한인 공동체의 사회, 경제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지리적, 공간적 접근은 이미 집중과 분산이라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김영성의 「시드니 한국인 거주유형」(『지리학연구』, 1998)과 『호주한인 50년사』(2008)에 수록된 이경숙의 「거주지역, 상권 및 사업 영역의 확대」는 도시에서 한인 이민자들의 주거 및 경제활동 공간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집중과 분산이라는 상반된 경향 속에서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해외한민도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6-SRK-1230006).

1) Andrew Markus, James Jupp and Peter McDonald, *Australia's immigration revolution* (Crows Nest: Allen & Unwin, 2009), pp. 65-87.

2) *Ibid.*, p. 85.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한인 이민자들의 대도시 집중과 동시에 도시 공간의 분산 현상을 파악하고 그 경향을 확인하는데 기여를 했다. 그러나 호주에 전형적인 대규모의 이민자 공동체가 관찰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은 대량 생산시스템이 요구하는 대규모 단순 노동력을 수용했던 유럽 및 미국의 이민자 집단의 공간 점유와 비교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호주의 백호주의 정책의 포기로 인한 아시아계 이민자의 증가와 호주의 산업구조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이러한 현상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들의 주요 대도시로의 ‘집중’과 도시 공간 내에서의 ‘분산’이라는 모순적인 이민자 그룹의 분포는 이민 현상이 야기하는 사회변동 양상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유럽의 산업도시의 경우 공장 주변에 형성된 이주노동자 밀집지구들이 거대한 이민자 집단주거지로 변화하면서 에스닉 그룹별로 공간을 점유하여 공동으로 거주하는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1970년대의 경제 위기 이후 공장 이전 등으로 공동화 현상을 겪거나 이로 인해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게 되어 사회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폭동과 테러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사회 갈등이 분출되고 있다. 결국 상대적으로 소수의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호주는 급격한 산업공동화 현상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호주적 다문화주의가 뿌리내리는 토대가 될 수 있었다.

II. 시드니 한인 이민자의 ‘집중’과 ‘분산’

1. 한인 공동체와 초국적 이민자 경제 공간

시드니 호주 한인의 공간 점유는 이민자 집단으로서 한인들의 ‘집중’과 ‘분산’을 잘 보여준다. 한국인 이민자들은 1990년대 중반에는 80%가 시드니에 거주했으며, 2001년에 73%를 거쳐 2006년에는 63%가 시드니에 살고 있었다. 2011년에는 55.9%로 줄었지만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한인 전체 이민자 숫자는 2006년도에 39,448명에서 2011년에 49,357으로 늘어났으며

시드니의 한인 숫자도 같은 시기 38,210명에서 47,335으로 상승했다.³⁾ 한인들은 대도시를 선호하여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 아드레이드, 캔버라, 호바트 등 각주의 수도에 집중하여 거주하는 경향을 보인다.⁴⁾ 또한 시드니를 주거도시로 선택하는 한인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한인 이주 규모가 커지면서 전체적인 숫자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주	한인수	주 수도	한인수
뉴사우스웨일즈	39,448	시드니	38,210
퀸즐랜드	8,864	브리즈베인	5,264
빅토리아	6,904	멜번	6,554
서부호주	2,523	퍼스	2,341
남부호주	2,085	아드레이드	1,928
캔버라지역(ACT)	1,014	캔버라	1,006
타즈마니아	439	호바트	245
북부지역(NT)	95	다윈	60

각주 및 주요도시 한인 인구
전주전체 한인 인구 60,837 (2006, ABS)⁵⁾

한인 이민자들의 분포는 도시지역에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 이민자들이 도시 내에서 중국인만큼 넓은 지역에 분포하면서도 어느 지역에서도 인구면에서 상위 에스닉 그룹에 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들의 공간 점유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즉 한인 이민자들은 1980년대 캄시(Campsie)에 한인촌을 형성한 이래로 스트라스필드(Strathfield)와 이스트우드(Eastwood) 등에 상업지구를 만들어 경제활동 거점을 형성하고 있지만 대규모 군집지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 거주분리지수(dissimilarity index)를 통해 볼 때 1990년대 초 시드니에서 한국인 이민자 집단이 보여준 수치는 중국 이민 집단이나 칠레 이민 집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동남아시아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3) ABS, 2011 Census, Language Diversity.

4) 이경숙, 「거주지역, 상권 및 사업 영역의 확대」, 『호주한인50년사』 (서울: 진흥, 2008), 174쪽.

5) 이경숙, 같은 책에서 재인용.

연쇄 이주가 많으며 대규모 군집지를 형성하지도 않는다.⁶⁾

한인들의 대규모 군집지가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시드니에서 지속적인 상권의 발전이 관찰된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 사이에 형성되기 시작하는 캄시 지역의 한인 상권은 스트라스필드, 이스트우드를 비롯해 파라마타(Parramatta), 채스우드(Chatswood), 에핑(Epping), 시드니 시티(City of Sydney) 지역으로 확대되었다.⁷⁾ 1987년도에 70개소로 추정되는 한인 상점은 1990년도에 400개에서 1997년에는 1,300개 까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식료품점과 식당을 중심으로 했던 초기 한인 상권은 교민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1990년도에 62개의 업종에서 1997년에 101개로 확대되었다. 한인이 경영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식당, 미용실 식품점, 건강식품 이민상담, 의류, 한의원, 유학원, 회계사 등이 있다. 또한 스트라스필드, 시티, 에핑, 채스우드, 캄시, 파라마타 등 한인 상권이 밀집한 전지역에 한인 교회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 식당보다 많은 숫자의 교회가 한인들의 유동인구 증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후 한인 교회는 중심 상권에서 떨어진 한적한 교외의 주거지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하였다(사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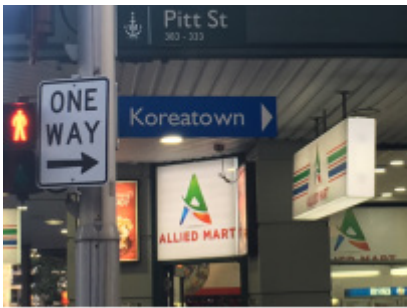


[사진 1]시드니 북부 로즈빌의 한인 교회(2018년)

6) 김영성, 「시드니 한국인 거주유형」, 『지리학연구』, 32집, 2호(1998), 55쪽.

7) 이경숙, 「거주지역, 상권 및 사업 영역의 확대」, 180쪽.

시드니에는 대규모의 한인 공동체가 집중적으로 발달했다기 보다는 스트라스필드, 이스트우드, 시티 등 여러 지역에 한인 상권이 고르게 발달해있다. 규모면에서 스트라스필드와 같이 상대적으로 큰 상업지구가 존재하지만, 한인들은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다. 즉 독자적인 이민자 경제 공간 보다는 다문화 공동체의 일원으로 초국적 이민자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시티 지역에는 시드니에서도 상징적인 ‘코리아타운’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 코리아타운은 독자적인 거주-경제 공동체라기보다는 주변의 중국, 베트남, 일본 상점들과 함께 아시아 다문화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사진 2] 시티의 코리아 타운(2018년) [사진 3] 시티의 한인 상점(2018년)

지방정부구역(Local Government Area)인 시드니 시티지역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2011년을 기준으로 1.6%로 시티의 총인구 169,505명 중 2,753명이었다.⁸⁾ 당시 뉴사우스웨일즈 주 전체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47,000여명으로 0.7% 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시티에 한국인들이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시드니(Greater Sydney) 지역에서 한인 집중도를 살펴보면 시티의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같은 시기 혼스비 셔 카운실(Hornsby Shire Council)의 경우 총인구의 2.7%에 해당하는 4,298명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⁹⁾

8) ABS, 2011 Census, City of Sydney.

9) ABS, 2011 Census, Hornsby.

2. 시드니 한인 주거지 분포와 특징

시드니의 한인 이민자들의 거주지는 캄시에서 스트라스필드 그리고 파라마타로 이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차역을 중심으로 상업지구와 함께 발달해 있다. 그러나 한인의 분포가 이 상업지구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인들은 쿠링가이, 혼스비, 라이드 등 북쪽 지역으로 퍼져있다. 즉 한인들은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한 군집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캄시, 스트라스필드, 이스트우드 지역을 포함하여 북쪽 지역에 이르기 까지 시드니 전지역에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한인들이 시드니에 분산하여 분포하면서 군집지를 형성하지 않는 현상으로 인해 한인들은 시드니 모든 지역에서 소수 에스닉 그룹에 머물게 되었다. 물론 한인들이 소수 에스닉 그룹에 포함되는 것은 2016년 현재 12만 여명에 불과한 전체적인 이민자 숫자(부모의 출생지 기준)에서 기인한다. 한국인들은 1976년에서 1985년 사이에 4,877의 한국인이 호주에 도착했으며, 1986년에서 1995년 사이에는 11,924명, 1996년에서 2005년에는 23,675명,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23,543명이 호주에 정착했다. 2011년부터 2015년 까지 각각 4,374명, 4,795명, 4,868명, 4,835명, 5,946명이 호주로 이민을 선택했다. 같은 기간 동안 호주에 입국한 중국 이민자들은 21,703명, 25,761명, 30,375명, 40,023명, 46,120명이었다.¹⁰⁾ 1946년부터 2016년 8월까지 70년간 출신 국적별 입국자 총인원은 한국인이 98,776명이었던데 반해 중국 출신은 509,555명, 인도 출신은 455,389명, 필리핀 출신은 232,386명, 베트남 출신이 219,355명으로 한국인보다 2배에서 5배가량 많이 호주로 입국했다.¹¹⁾

중국과 인도 등 다른 아시아계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한인 이민자 숫자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내에서의 분산 현상은 다른 이민자 그룹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2000년대에 들어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대표적인 지방정부구역의 하부 행정단위(suburb)로 행정 중심지인 파라마타의 경우 2016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인도계와 중국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29.8%와 12%인데 반해

10)BS, Country of birth of person by year of arrival in australia, *2016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11) *Ibid.*

한국인들은 1.5%에 불과하다. 혼스비(Hornsby)의 경우에도 출생지를 기준으로 중국인이 11.9%, 인도인이 5.7% 인데 반해 한국인은 3.7%에 머물고 있다.

지역구분*		출생국가								
		한국	중국	스리 랑카	레바논	터키	인도	베트남	이라크	
북서 31km	Kuringgai	○	○	○						
북서 25km	Hornsby	○	○	○						
북서 31km	Baulkham hill	○	○	○						
북서 13km	Ryde	○	○	○						
북 8km	Willoughby	○	○							
서 30km	Holroyd			○	○	○	○			
서 23km	Parramatta	○	○	○	○	○	○			
서 19km	Auburn	○	○	○	○	○				
서 20km	Fairfield				○	○		○	○	
서 15km	Concord	○	○							
서 12km	Strathfield	○	○	○			○			
서 10km	Burwood	○	○				○			
남서 10.5km	Canterbury	○	○		○	○				
남서 20km	Bankstown				○					
남서 32km	Liverpool				○	○		○	○	

▲ 시드니 아시아계 이민자 그룹 분포

Andrew Markus, James Jupp and Peter McDonald, Australia's immigration revolution, (Crows Nest: Allen & Unwin, 2009), pp.79-84.

*City of Sydney를 중심으로 한 방향과 거리

호주의 이민자 공간 분포와 한인 공동체

지방정부구역인 파라마타시 카운실(City of Paramatta Council)이나 혼스비 시 카운실 전체로 확대해도 한국인 이민자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중국계와 인도계 이민자의 숫자가 한국계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점에서 기인하지만 규모면에서 한국과 비슷한 이라크 이민자들이 페어필드(Fairfield)나 리버풀(Liverpool)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과 대조적이다. 또한 한국보다 숫자가 많기는 하지만 베트남 이민자들도 역시 페어필드와 리버풀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에스닉 집단임을 고려한다면 한국인 이민자들의 과편화된 분산 현상은 도시 공간 점유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인도, 터키, 레바논 출신의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베트남이나 이라크 출신 이민자들보다는 넓은 도시 공간에 분포하고 있지만 한국이나 중국 이민자들에 비해서 거주지역이 제한적이다.

출생국가 한국인 거주지	한국 출생	중국 출생	스리랑카 출생	레바논 출생	터키 출생	인도 출생
Canterbury	○	○		○	○	
Burwood	○	○				○
Strathfield	○	○	○			○
Concord	○	○				
Auburn	○	○	○	○	○	
Parramatta	○	○	○	○	○	○
Ryde	○	○	○			
Willoughby	○	○				
Hornsby	○	○	○			
Kuringgai	○	○	○			
Baulkham hill	○	○	○			

▲ 시드니 한인 주요 거주지역의 아시아계 이민자 그룹(2006)

Andrew Markus, James Jupp and Peter McDonald, Australia's immigration revolution, (Crows Nest: Allen & Unwin, 2009), pp.79-84.

시드니에서 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중국인들의 분포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스리랑카, 레바논, 터키, 인도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한인들이 주거하는 파라마타와 오번(Auburn) 등은 대체로 대부분의 이민자 집단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이곳은 한인 상권이 밀집해 있는 캔터베리(Canterbury)와 스트라스필드의 서쪽 지역으로 이민정착 초기에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기차역 주변지역인 레드fern(Redfern)을 시작으로 캠프시 등에 모여 살았던 한인들이 점차 서쪽 지역의 역세권으로 주거지를 넓혀 나갔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인과 스리랑카인들과 더불어 한인 이민자들은 시드니의 북쪽 지역에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곳은 주로 백인 중산층이 사는 곳으로 시드니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집중과 분산으로 요약할 수 있는 공간 점유의 특징의 원인은 무엇인가? 호주의 한인 이주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 노동력의 집단 이동과 대비되는 개별적인 숙련-기술 이민 또는 투자 이민이라는데 있다. 이경숙이 지적하듯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집중되는 전문직 기술 이민자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2000년대 초부터 실시된 이민 정책의 결과로 시드니의 한인 집중이 줄어들고 다른 도시로의 분산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한인 이주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¹²⁾ 2001년 호주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한인 중 노동, 하급사무직, 하청생산직 등에 고용된 인원이 27%였으며, 행정직, 전문직 및 준전문직, 기술자 등에 해당하는 직종에 고용된 인원이 61%에 이르렀다.¹³⁾ 또한 타일공, 목수 등 숙련 건설노동자들이 한인 노동자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도 한인의 이민 성격을 규정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단순노동력의 이주와 구별되는 숙련-기술 노동 중심의 이러한 이주의 성격은 이민자의 에스닉(ethnic) 공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적어도 호주 한인의 사례는 대규모의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산업국가의 대도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민자들의 공간 점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이민자들의 공간 형성에 있어서 개별이민자들의 공간 선택 전략에 앞서 이민자를 수용하는 국가의 산업구조와 이민 정책이 보다 근본적인 변수임을 보여준다.

12)이경숙, 「거주지역, 상권 및 사업 영역의 확대」, 174쪽

13)이경숙, 「한인들의 직업과 가정생활」, 『호주한인50년사』(서울: 진흥, 2008), 209쪽

Ⅲ. 호주의 산업구조와 이민자 공간의 형성

1. 호주의 산업구조와 한인 이주의 특징

영국, 프랑스, 서독 등 유럽의 주요국가가 ‘영광의 30년’이라는 이름 아래 생산력 증가를 경험하고 소비사회의 정점에 진입했던 1968년, 호주에는 62,900여 개의 공장에 단지 133만 여명이 제조업에 고용되어 있었다.¹⁴⁾ 프랑스에서는 1962년에서 1968년 사이 노동자의 숫자가 약 700만 명에서 770여만 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15%가 제조업에 종사했던데 반해, 호주에서는 같은 시기 120만 명에서 총인구 11%에 해당하는 133만 명으로 증가하였다.¹⁵⁾

계급적 정체성을 가졌던 노동자 주거지가 에스닉 정체성을 가진 공간으로 변하는 것은 이민자 출신의 대규모 단순 노동자를 수용했던 공장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다. 20세기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과 소비사회로의 진입은 새로운 비숙련노동자들의 집중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이민자들의 집단주거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의 경우, 1960년대에 르노(Renault) 비양꾸르(Billancourt) 공장의 12,00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 중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세네갈 등 과거 프랑스 식민지 출신이 60%를 넘었으며, 이들은 파리의 외곽지역에 주거지를 형성하였다. 1954년 파리 북쪽 외곽의 주네빌리에(Gennevillier)에 거주하는 33,127명의 주민 중 8,574명이 외국인이었으며, 그중에 7,476명이 북아프리카 출신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쇼송(Chausson) 자동차 공장에 단순노동력을 공급하는 노동자였다.¹⁶⁾ 1970년 벨기에에 거주하는 67,534명의 스페인인 중 49.8%가 브뤼셀-수도 지방(la Région Bruxelles-Capitale)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브뤼셀-미디(Bruxelles-Midi)역이 위치한 생-질(Saint-Gilles) 지구는 53,000

14) ABS, Manufacturing industry, Year book Australia, 1970, p. 714.

15) Ibid. ; Bernard Grais, “Sur 100 personnes actives 15 paysans 38 ouvriers”, *Economie et statistique*, 2, 1(1969), p. 43.

16) 신동규, 「1980년대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이주노동자와 신인종주의: 계급과 인종 사이」, 『호모 미그란스』, 7(2013).

의 주민 중 30%가 스페인 이민자였다.¹⁷⁾ 생질에 거주하는 스페인 이민자들은 단순노동자로 대부분 브뤼셀 지역의 산업화와 함께 만들어진 미슐랭(Michelin)이나 시트로엥(Citroën)과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¹⁸⁾ 영국의 경우에도 에스닉 공동체의 형성은 대량생산 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민자 출신의 무슬림과 백인 주류 사회 사이의 극심한 폭력사태를 경험한 올덤(Oldham)의 경우 면직물 공장의 부족한 야간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인들이 정착을 했다. 가난한 인도 출신의 노동력을 흡수한 잉글랜드 북부의 공업도시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¹⁹⁾

지금까지도 호주는 제조업의 비중이 총생산의 6%, 전체 산업에서 7.4%에 불과한 서비스업 중심의 국가라는 점에서 이민자 집단과 노동과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다. 2016년 현재 호주의 서비스업 종사자는 940만 명, 건설업 종사자는 110만 명이며, 제조업 종사자는 90만 명에 불과하다. 그 뒤를 이어 농업에 30만 명, 광업에 20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²⁰⁾ 호주 산업 구조의 특징은 제조업이 대규모의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20세기 프랑스 대도시의 ‘방리유(Banlieue)’나 벨기에 브뤼셀의 ‘가난한 초승달(Croissant pauvre)’ 지역처럼, 혹은 19세기 시카고의 스톡야드(Stock yards)나 팩킹타운(Packing town) 주변처럼, 공장 주변에 노동자를 위한 대규모 집단 주거지가 형성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호주의 산업구조와 함께 고려해야할 점은 호주 한인의 이주 규모가

17) Shin Dongkyu(translated from French to Spanish by Jose Babiano Mora), “Ser español en una fábrica belga en los años setenta”, *Historia de trabajo y sociedad*, 6(2014), p. 71.

18) Shin Dongkyu, “Main-d’oeuvre immigrée et revendications qualitatives: la grève sauvage chez Michelin à Leeuw-Saint-Pierre”, *Revue belge d’histoire contemporaine*, XLII(2012), p. 108 ; Dongkyu Shin, “Conflit-syndicats et les travailleurs immigrés; Citroën et Michelin en région bruxelloise 1969-1970”, *Agenda Interculturel*, 290-291, Centre bruxellois d’Action interculturelle, fév-mars 2011, p. 30.

19) 염운옥, 「인종주의와 빈곤의 정치학: 2001년 영국 올덤 소요사태」, 『중앙사론』, 36집(2012), 424쪽.

20) Office of the Chief Economist, Department of Industry, Innovation and Science,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Industry Report 2016*, p. 33.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한다는 것이다. 1946년 이전에 6명의 한국인이 호주로 이민을 갔으며, 1946년에서 1955년 사이에는 9명이, 1956년에서 1965년 사이에는 41명에 불과한 한국인이 새롭게 호주에 도착했다. 1966년에서 1975년 사이에 그 숫자가 10배 이상 증가 했지만 불과 596명에 불과했다. 1976부터 1995년까지 20년 동안 연평균 840명의 한국인이 호주에 도착했으며, 1996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한국인 이민자가 연평균 약 2,300으로 늘어났으나, 인도의 약 1/3, 중국의 약 1/4 수준에 불과했다. 2006년 이래로 연평균 4000명 이상의 한국인이 호주에 정착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약 6,000명의 한국인이 호주를 선택했다.²¹⁾ 2016년을 기준으로 총 12만 3천여 명의 한국인이 호주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²²⁾ 호주에서 한국인 이민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기점이었던 1996년에는 약 36,000명의 한국인이 호주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중 80% 이상이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었다.²³⁾

시드니에 한인 집중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요인은 인구 수위 도시로서의 시드니의 사회 경제적 위상으로부터 비롯된다. 결국 교통, 통신 등의 편의성으로 인해 시드니에 한인 거주자 및 단기체류자(관광객, 어학연수 등)가 증가하게 되고, 이를 통해 동포를 대상으로 한 상업 및 서비스업(ethno-business)이 가능해졌다.²⁴⁾ 이에 따라 1987년에 70여개의 한인 사업체의 수가 1990년에 400개를 넘었으며 1997년에는 1,30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²⁵⁾ 유럽의 여러 도시들이 제조업을 통해 대규모의 단순 노동력을 유인하면서 공장을 중심으로 에스닉 집단별 공간 구분이 이루어졌다면, 호주의 한인들은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수민족 집단 주거지에 분산 거주하는 형태를 보였으며, 특히 도심과 연결되는 도시철도 역세권에 주거지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한인들은 경제수준의 상승으로 주거 및 교육 환경이 좋은 도시 내의 지역으로 연쇄적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한인들의 주거 형태는 도시

21)ABS, Country of birth of person by year of arrival in australia, 2016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22)ABS, Ancestry by country of birth of parents, 2016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23)Han Gil-soo, "Australian Immigration polity and Settlement of Koreans in Australia",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37, 2(2000), p. 197.

24)김영성, 「시드니 한국인 거주유형」, 45쪽.

25)김영성, 같은 논문, 43쪽.

내의 밀집된 집단 주거지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분산 거주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소수의 한인 숙련-기술 이민: 이민 공간 형성의 젠더적 접근

호주가 필요로 했던 노동력은 숙련노동자와 기술자였다. 호주의 산업구조가 대규모의 단순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호주의의 영향아래 놓여있던 1962년부터 1968년 사이 한국을 떠나 호주로 간 이주자는 단지 7명에 불과했으며, 1969년에도 34명에 머물렀다. 이들은 주로 개신교 목사나 태권도 사범이었으며, 호주의 광물 개발 회사에 취업을 한 소수의 기술자들과 그들의 가족이었다. 또한 콜롬보 계획으로 기술연수를 받았던 유학생들 중 일부가 호주에 정착을 했다.²⁶⁾ 1970년대에 들어서 그 숫자가 2,750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이민자의 숫자가 대폭 증가했다. 이들은 소수의 기술자-전문가 이민자 집단, 호주로 재이주 한 이민자 집단, 동두천의 미군 군속 출신 이민자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에는 유학을 통해 입국한 후 정착한 경우나 광물 개발과 관련된 헬기조종사와 지질학자, 태권도 보급을 위한 사범 등이 속해 있으며, 두 번째 유형에는 베트남 전쟁 중 파월인력이 대규모로 호주에 입국해 합법적 지위를 취득한 이민자들이 포함된다. 또한 독일의 간호사와 광부, 중동 및 중남미의 한인 이민자들이 호주에 입국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사면령의 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이었다. 세 번째 유형은 베트남에 파견되었다가 귀국하여 동두천 미군부대에 근무하다가 다시 호주로의 이민을 선택한 200여명의 한국인들이 있다.

1973년 파리평화협정으로 베트남의 미국 용역회사에 취업했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호주로의 기술자 이민이 시작되었다. 이 이민의 특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협정에 의한 대규모 노동력의 이동이 아닌 ‘방문비자’를 이용한 개별적이며, 비합법적인 이주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사이공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호주로 입국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김동삼의 편지에도 “방문자가 이곳에 와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26) 문경희, 「호주 한인 ‘1세대’의 이민에 대한 연구 - 이주체계접근법과 이민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67집(2017), 134쪽.

김동삼의 편지 이후 관광비자로 호주로 오게 된 노동자들은 레드편에 위치한 김동삼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우선 일자리부터 찾았다. 이들은 당시 노동력이 부족했던 호주에서 영주권 없이도 빠르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1975년 이렇게 베트남을 거쳐 호주에 들어온 한국인이 500여 명이 있었으나 회사의 배려로 영주권을 획득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취업이 금지된 비자로 일을 하는 ‘불법체류’ 신분이었다.

이들은 1급 자동차 정비자격증, 크레인운전 자격증 등 기술을 인정받아 취직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가 단순 노동력이 필요한 공장에 취직하기도 하였다. 당시 호주의 자동차 산업은 단순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대표적인 분야였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아 대규모 한인 공동체 형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만 초기 한인 정착 과정에서 주거 문화 형성에 중요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던롭 타이어 공장은 시드니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곳으로 한때 이곳에서 30명의 한인들이 동시에 일하기도 했다. 던롭 공장은 드러모인(Drummoyne) 지역의 바닷가에 위치했다. 이곳에서 일하던 한인 들은 새벽 4시 30분에서 5시 사이에 집을 나서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출근하여 12시간 노동을 하는 일상생활을 반복했다. 또한 자동차 산업도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1936년에 만들어진 포드 홈부쉬(Homebush) 공장에서는 20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했다. 홈부쉬 공장은 1,200명 규모였으며, 1994년에 문을 닫을 마지막으로 4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됐다. 베트남으로부터 들어온 한인들은 정착했던 플레밍턴(Flemington), 애쉬필드(Ashfield), 킹스크로스(Kingscross), 오번 등은 던롭이나 포드 공장 등 일터로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곳이었다. 이들이 선택한 주거지는 도심에서 멀지 않은 도시철도 역 주변 지역으로, 과거 상공업 혼합지대 중에서 소수민족이 거주하며, 인구밀도가 높고,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이었다.

베트남으로부터 호주로 들어온 기술 이민자들은 대부분 독신 남성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이들의 주거형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던롭 타이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매일 12시간 주 6일 근무로 주급이 145(호주)달러를 넘기도 하였다(통상 5일 근무에 55달러). 당시 플레밍턴의 방 2칸짜리 숙소의 주 임대료가 30달러였지만 6-7명 정도의 독신 남성들이 집단거주를 하면서 주거비를 절약하였다. 이러한 집단 주거

형태가 한인들의 주거문화로 자리 잡아 가는 중에 에쉬필드(Ashfield)의 주택에 최대 15명 까지 수용하면서 한인들의 초기 거점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에쉬필드의 엘리자베스 스트리트 22번가는 베트남에서 호주로 입국한 200여명의 한국인들이 거쳐 가는 곳이었다.

이러한 초기 정착 단계의 남성중심의 집단 거주 문화는 이후 한국인 이민자들이 도시 공간에 확산 분포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서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로부터 호주로의 재이민자의 입국과 가족 결합 등으로 한인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저렴한 주거비, 편리한 교통, 우수한 교육환경을 동시에 만족 시킬 수 있는 곳으로 연쇄 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선 에쉬필드와 캔터베리(Canterbury)를 중심으로 한국인 주거지가 확장되어 나갔다. 1970년대 후반부터 저렴한 주거 및 상가 임대료와 편리한 교통을 갖춘 캄시(Campsie)를 중심으로 한인 상업지구가 형성되었으며, 캄시의 배후 지역인 캔터베리를 중심으로 주거지가 형성되었다. 1986년 캔터베리에는 전체 한국인의 16.8%가 거주하면서 1,000명이 넘는 인구가 집중됐다. 이곳은 동남아시아계와 아랍계 이민자들이 집중 거주하면서 비영어권역을 형성하고 있었다. 에쉬필드에는 9.9%에 해당하는 649명의 한국인이 거주했지만 지역인구의 1.6%를 차지하면서 최대 인구 밀집지를 형성하였다.

IV. 맺음말

노동은 이민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력을 수입하는 국가의 산업구조와 그에 따른 노동력 수급 정책은 이민현상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호주의 한인 이민에 있어서 기술 이민이라는 노동력의 특징은 이민자들의 도시 공간 ‘집중’과 도시 공간 내에서의 ‘분산’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냈다. 호주 이민사에 있어서 베트남을 거쳐 시드니에 정착한 한국인들은 이후 한국인들의 초기 집단 주거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한인 공동체가 한인들의 집중화되는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로 성장하지 못하고 한인들은 시드니의 각 지역에 분산되어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단순 노동력의 집단 이동과 대비되는 개별적인 숙련-기술 이민 또는 투자 이민을 선호했던 호주의 이민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호주에 연고가 없는 사업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시드니 북쪽 지역에 한인 주거지가 발전하는 현상도 경제활동을 위한 노동의 성격과 그에 따른 사회-문화 자본이 이민자의 공간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경제활동의 내용에 따른 이민자 그룹별 공간 분산 현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앞으로 캄시에서 시작하여 애쉬필드, 버우드, 스트라스필드로 한국인들의 거주지 및 경제활동 영역이 확대되는 현상과 파라마타까지 연결되는 주거지 분산의 동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시드니 북부 지역에 한인 주거지가 확대되는 현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창원대학교 사학과, shindongkyu@changwon.ac.kr

주제어(Key Words):

호주(Australia), 한인 이민자(Korean migrants), 이민자 공동체 (Migrant community), 산업 구조(Industrial structure), 공간 분포 (Spatial distribution).

(투고일: 2018. 10. 31, 심사일: 2018. 11. 8, 게재확정일: 2018. 11. 14)

<국문 초록>

호주의 이민자 공간 분포와 한인 공동체
- 호주의 산업구조에 따른 집중과 분산 -

신동규

호주에서 도시의 이민자 공동체 특징은 ‘집중(concentration)’과 ‘분산(dispersion)’으로 요약된다. 이는 이민자의 대도시 집중 현상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도시 공간 내에 다양한 이민자 그룹의 분산이라는 두 가지 특징의 공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집중’과 ‘분산’ 현상은 호주에 정착한 이민자들이 형성한 에스닉 공간의 특징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호주에 유럽처럼 전형적인 대규모의 비숙련 노동 이민자 공동체가 관찰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은 대량 생산시스템이 요구하는 대규모 비숙련 이주 노동력을 수용했던 유럽 및 미국의 이민자 집단의 공간 점유와 비교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호주의 백호주의 정책의 포기로 인한 아시아계 이민자의 증가와 호주의 산업구조에 대한 이해 속에서 ‘집중’과 ‘분산’이라는 이중 현상을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호주에서 형성된 한인 공동체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Abstract>

Spatial Distribution of Foreign Population and Korean
community in Australia
- Concentration and dispersion grounded on the Industrial
Structure -

Shin, Dongkyu

In Australia, Migration communities in urban area have two major characteristics: Concentration and Dispersion. It means the coexistence of two features. One is the concentration of immigrants in some of the large major cities and the other is the dispersion of Foreign Population in the urban area. This dual phenomenon shows the characteristic of the ethnic spatial distribution of immigrants. How to explain that in Australia, there isn't a large scale of non skilled migrant workers community we can observe typically in Europe? This Australian situation is comparable to the spatial distribution of immigrants in Europe and USA accepting a huge number of non-skilled migration workers for the mass production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se this dual phenomenon in understanding the Australian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growth of Asian population after the abandonment of the White Australia Policy. In this perspective, we can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 of Korean Community in Australia.

참 고 문 헌

1. 사료

- ABS, Manufacturing industry, *Year book Australia*, 1970.
ABS, 2011 Census – Language Diversity.
ABS, 2011 Census, City of Sydney.
ABS, 2011 Census, Hornsby.
ABS, Ancestry by country of birth of parents, *2016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ABS, Country of birth of person by year of arrival in australia, 2016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Office of the Chief Economist, Department of Industry, Innovation and Science,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Industry Report 2016*.

2. 단행본

- Markus Andrew, Jupp James, Mcdonald Peter, *Australia's immigration revolution* (Crows Nest: Allen & Unwin, 2009).
호주한인50년사 편찬위원회, 『호주한인50년사』 (서울: 진흥, 2008).

3. 논문

- Grais Bernard, “Sur 100 personnes actives 15 paysans 38 ouvriers”, *Economie et statistique*, 2, 1(1969).
Han Gil-soo, “Australian Immigration polity and Settlement of Koreans in Australia”,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37, 2(2000).
Shin Dongkyu(translated from French to Spanish by Jose Babiano Mora), “Ser español en una fábrica belga en los años setenta”, *Historia de trabajo y sociedad*, 6(2014).
Shin Dongkyu, “Main-d’oeuvre immigrée et revendications qualitatives: la grève sauvage chez Michelin à Leeuw-Saint-Pierre”, *Revue belge d’histoire contemporaine*, XLII(2012).
Shin Dongkyu, “Conflictualité, syndicats et les travailleurs immigrés;

Citroën et Michelin en région bruxelloise 1969-1970”, *Agenda Interculturel*, 290-291, Centre bruxellois d’Action interculturelle, fév-mars 2011.

김영성, 「시드니 한국인 거주유형」, 『지리학연구』, 32집, 2호(1998).

문경희, 「호주 한인 ‘1세대’의 이민에 대한 연구 - 이주체계접근법과 이민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67집(2017).

신동규, 「1980년대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이주노동자와 신인종주의: 계급과 인종 사이」, 『호모 미그란스』, 7(2013).

염운옥, 「인종주의와 빈곤의 정치학: 2001년 영국 올덤 소요사태」, 『중앙사론』, 36집(2012).